오늘의 날씨와 생활

9월 23일 월요일 음 8월 25일 (2물)

기상정보

구름 많음

제주도는 제17호 태풍 '타파'의 영향에서 벗어나며 구름 많은 날씨가 되겠다. 아침 기온은 19~21℃, 낮 최고 기온은 23~26℃로 예상된다. 오전까지는 바람이 강하게 불 것으로 보이며 바다의 물결도 2.0~5.0m로 높게 일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오 전	강 수 확 률	오 후
30%	제 주	20%
30%	성 산	20%
30%	고 산	20%
30%	서귀포	20%

	해뜸 06:22 / 해짐 18:30	달짐 14:30
물때	만조 04:24 / 18:51	간조 11:26

주간예보 〈문의 ☎ 국번없이 131〉

내일	맑음	18/24℃
모레	구름 많음	20/25℃

생활·안전 기상정보

식중독지수	자외선지수
경고	높음

월드뉴스

美 남성, 바닷물속 프러포즈 도중 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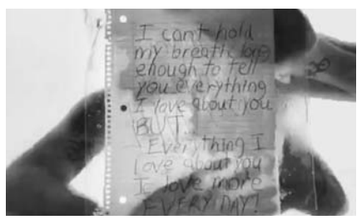
최고의 날이 비극으로 변해

한 미국 남성이 여자친구에게 청혼하러 바닷물에 들어갔다가 익사했다고 미국 CNN방송 등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 루이지애나주에 사는 스티븐 웨버라는 남성은 최근 여자친구 케네샤 앙투완과 함께 아프리카 동부 탄자니아 해안에서 약 60㎞ 떨어진 펨바섬의 해저 호텔로 여행을 떠났다. 이들은 섬에서 250여m 떨어진 곳의 수심 약 10m 위치에 고정된 특별한 객실에 묵었다.

지난 19일 그는 특별한 방식으로 프러포즈를 하기 위해 여자친구를 객실에 남겨 두고 바닷속으로 뛰어들었다. 고글과 물갈퀴를 착용하고 물속에 들어간 그는 비닐에 싼 종이를 객실 유리창을 통해 앙트안에게 보여줬다.

종이에는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다 말할 수 있을 만큼 오래



바닷물속에서 프러포즈하는 웨버.

숨을 참을 수는 없지만, 난 당신의 모든 것을 사랑하고 매일 더 사랑해!"라고 쓰여 있었다. 이어 웨버는 이 종이를 뒤집어 "나랑 결혼해줄래?"라는 문구를 보여줬고, 바지에서 결혼반지도 꺼내 보였다.

이 모든 과정은 여자친구의 카메라에 담겼다. 하지만 가장 설레고 기뻐야 할 이 순간은 순식간에 비극으로 바뀌었다. 웨버가 바닷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숨을 거둔 것이다.

리조트 측은 사고신고에 즉각 대응했으나 도착했을 때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한라일보 제주의대표신문
발행인·인쇄인·편집인 김용구 편집국장 김기현
〒63185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서사로 154 대표전화 064-750-2114
인터넷 서비스 http://www.ihalla.com e-mail : hl@ihalla.com
광고접수 본 사 750-2828 / FAX 752-7448 서귀포지사 732-5552 / FAX 732-5559
기사제보 750-2214 / FAX 752-9790
구독신청·배달 750-2330 구 독 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1989년 4월 22일 창간 / 등록년월일:1988. 12. 5 등록번호: 제주, 가00002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백록담

지하수 오염예방 중·단기대책 시급

고 대 로
행정사회부장

제주의 지하수가 수년동안 오염되고 있다. 지하수는 청정 제주의 대명사였다. 제주의 지하수는 빗물이 송이와 화산암층을 통과하면서 만들어진 물로 물·암석 반응을 통해 용해된 적당량의 광물질들을 함유하고 있어 국내 최고의 물맛을 자랑했다. 마을에 흐르던 용천수는 손으로 떠서 벌컥 벌컥 마셔도 아무탈이 없었다.

허나 이제는 수돗물을 끓여 마셔야 안심이 되는 세상이 됐다. 제주도내 곳곳에 분포했던 용천수는 고갈이 됐고 그나마 식수로 이용할 수 있는 용천수는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어쩌다가 이지경까지 오게 됐는지 너무 한탄스럽다. 더 큰 문제는 지하수 오염을 예방하기 위한 방안이 겉돌고 있다는 것이다. 지하수 오염 문제가 터질때마다 여론달래기용 해결책으로 제시했던 지하수 보존 관련 각종 용역도 더 이상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

제주 지하수의 오염원중 하나인 질산성 질소(NO3-N) 문제는 오래전부터 거론됐다. 10여년전 양돈장 밀집 지역 지하수에서 질산성 질소 농도가 다른 지역에 비해 높게 검출됐다. 일반적으로 오염되지 않은 지하수에서 질산성 질소는 3mg/ℓ미만이 검출되지만 제주도내 양돈장 밀집 지역 지하수에서는 7~10mg/ℓ이상이 검출됐다.

이에 제주도는 양돈·축산 분뇨 불법 배출을 강력히 단속해 지하수 오염을 차단하고 지하수 관련 용역을 통해 문제 해결에 접근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런 외침은 '허공 속의 메아리'로 전락했고 질산성 질소로 인한 지하수 오염은 더욱 악화됐다.

한국농어촌공사 제주지역본부가 지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서부지역 농업용 지하수 관정 12개소에 대한 수질 검사결과 대부분 관정에서 질산성 질소 농도가 배이상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국립환경과학원이 양돈 분뇨로 인한 지하수 오염 문제 해결을 위해 올해 지하수 수질개선 연구 용역 사업을 진행키로 했으나 용역 기간만 무려 3년이나 소요된다. 그동안 이곳의 지하수 오염은 사실상 방치된다.

제주도도 올해 전문기관이 용역에서 제안한 내용을 근거로 화학비료 적정 시비로 질산성 질소로 인한 지하수 오염을 방지해 보겠다는 계획을 수립했으나 이 역시 효과를 장담할 수 없는 실정이다. 화학비료 적정 시비량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농가들이 참여를 기피하게 되고 결국 혈세 8억원이나 투입한 용역도 무용지물이 된다.

제주전역에 분포하고 있는 개인오수처리시설(1만21개소)도 지하수를 오염시키고 있으나 인력 부족으로 단속 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제주 지하수의 오염을 줄이기 위해서는 중·단기 계획 수립이 선행돼야 한다. 우선 축산·양돈 업체 분뇨 배출·처리 시스템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해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 분뇨 불법 배출을 원천 차단해야 한다. 또 현재 각 기관에서 제각각 수행하고 있는 지하수 관리와 수질 모니터 시스템을 연결해 통합·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도내에서 1일 사용하고 있는 물의 양도 실시간으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 최근 10년간 지하수 수질 변동 사항 등의 관련 데이터도 한눈에 확인할 수 없는 현 시스템으로는 제주의 지하수 오염 예방은 요원할 것이다.

열린마당

적극행정을 아시나요?

강 명 철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주무관

올 2월 문재인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각 부처 장관들은 적극행정은 문책하지 않고 장려한다는 기준을 세우고, 독려해 주기 바란다"며 적극행정의 의지를 밝혔다. 정부는 적극행정이 공직문화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기관장 역할·책임 강화, 적극행정 면책·지원 및 보상, 소극행정 혁파, 현장과 소통하는 적극행정 문화 확산이라는 4대 추진방향을 정했다.

제주교육 현장에서도 자발적인 적극행정을 통해 교육중심 학교시스템을 만들어 가는 변화의 물결이 일고 있다. 지방공무원 스스로가 주인공이 돼 행정지원혁신 모형을 추진하는 학습공동체 운영이 바로 그것이다. 지난 8월, 교육활동 중심 학교 구현을 위한 행정혁신 모형을 제시하고 실천을 주도하기 위해 제주지역 공립학교 96개교 및 15개 기관 소속 지방공무원 133명이 참여해 총 7개 팀의 학습공동체를 구성했다.

학습공동체별 토론을 통해 행정혁신을 위한 인식 개선, 행정실에서 교육청 또는 학교지원센터로 이관 업무 발굴, 초중고 행정실 업무분석을 통한 학교 업무 표준화 방안 마련 등 지방공무원이 중심이 된 합리적인 행정혁신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석문 교육감은 지난 8월 월례기획조정 회의 시 "전국 최초로 지방공무원들이 자발적으로 학습공동체를 운영해 행정혁신 모형을 수립하는 것은 의미가 큰 성과다. 모든 직원들이 관심을 갖고 행정혁신에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제주도교육청 감사관실에서도 사전컨설팅제도 운영, 각종 면책 지원 및 우수공무원 선발 등의 인사상 인센티브 부여 등으로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지방공무원들에게 많은 지원을 해나갈 계획이다.

모든 교육가족 여러분께 당부 드리고 싶다. "당신 속에 잠재된 적극행정 본능을 깨워 제주교육 현장에 변화의 바람을 일으켜 주십시오!"

숙박시설 화재발생과 채무불이행 책임

장 영 훈
제주동부소방서 조천119센터

우리는 살아가면서 뜻하지 않게 타인으로부터 피해를 입어 손해를 배상받아야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이때 민법은 타인의 위법행위로 인할 때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을, 상대방이 계약의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한 투숙객이 여관에 숙박을 했다가 원인미상의 화재로 사망한 일이 있었는데, 피해자의 유족은 화재발생에 대한 여관주인의 고의과실을 입증하지 못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었다. 그래서 숙박계약 미이행에 따른 채무불이행 책임을 들어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여관주인은 자신은 계약대로 객실을 제공했는데 왜 이것이 채무불이행이 될 수 있느냐고 항변을 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숙박업자는 단순히 객실을 제공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고객의 안전을 배려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며, 이를 위반하여 고객의 생명·신체를 침해하여 투숙객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하고…"라며 여관주인에게 계약상 채무불이행 책임을 인정, 손해를 배상하도록 판결했으며(96다47302판결) 이는 이후의 유사사례에 대한 대법원의 일관적인 입장이 됐다.

판례에 의하면 숙박업자는 숙박계약시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투숙객을 안전하게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는 숙박계약에 당연히 인정되는 부수적인 의무로 비록 화재가 원인불명이어서 숙박업자에게 불법행위 책임이 없더라도 별도로 채무불이행에 의한 책임이 있다는 입장이다.

숙박업자로서는 투숙객을 화재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야할 계약상 채무가 있음을 명심하고, 채무불이행 책임을 면하기 위해 화재 등 위험 예방에 상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WIDEX HIGH DEFINITION HEARING
제주센터
와이덱스 보청기
국민건강보험, 청각장애인 보장구 지원금 확대 실시
최대 131만원 까지 지원
소리왜곡이 적은 자연스럽고 편안한 음질
보청기만을 연구·개발하는 덴마크 와이덱스 제품
왜! 와이덱스 보청기 일까요?
일관된 청각서비스 제공으로 고객만족도 향상
믿을 수 있는 철저한 사후관리
심의번호 2018-GN1-11-0011
이 제품은 "의료기기"이며 "사용상의 주의사항"과 "사용방법"을 잘 읽고 사용하십시오.
판매원 : 와이덱스 보청기 제주센터
상담예약 064) 755.1005
제주시청 제주대 와이덱스 보청기 CGV 화북 광양 사거리
제주시 동광로 4, 삼옥빌딩 3층 (제주시청 광양사거리)

방 수
- 폴리우레아방수 -
◆ 지붕, 옥상 방수 및 도장공사
◆ 축사, 냉동창고, 양식장, 수영장 방수
◆ 저수조, 하수처리장 내·외벽 방수
◆ 물탱크, 원유저장탱크, 주유소 바닥 코팅
◆ 수도관, 가스관 등 각종 강관 코팅
◆ 철재 부식 코팅, 아파트 주차장 바닥
◆ 산업용시설물, 발전소, 학교, 관공서 옥상
◆ 구조물의 모든 부위 방수, 콘크리트 부식 방지
◆ SMC, FRP 물탱크 제작, 수리
A/S기간 : 3년 보장
주식회사 내쇼날건업
내쇼날FRP페인트총판
- 방수, 도장 전문건설업, 여성기업 -
TEL : 064-727-9800 H.P : 010-3699-4850
FAX : 064-753-8850 010-3211-0218
national90@naver.com

모든품종 감귤(묘) 분양
종자업등록번호 제18-2002-20-07호
◎황금향 ◎레드향 ◎천혜향 (1, 3년생)
• 유라실생 • 하례조생
• 미니향·레몬·영귤
• 한라봉 • 히로시마7호
• 블러드 오렌지(다로코)
• 천전(가와다) 온주(천지향 8년생) (당도 16브릭스 이상)
※ 묘목 접수 판매(1년생 묘목 접수만 취급)
★ 모든 묘목 샘플검사결과 바이러스 미검출
서 귀 종 묘
064-733-7005, 010-6677-5753

리모델링의 선두주자
濟(제)州(주)리모델링
辛(신)一(일)祚(조)
누수탐지·방수
신축 / 증축 / 리모델링 / 화장실 리모델링
아파트 / 단독주택 전체 리모델링 / 지붕개량 / 옥상방수 / 페인트공사 / 창문/ 도어문 / 대문 교체
붙박이장 / 싱크대 / 신발장 / 도배 / 장판
몰딩 시공
책임시공, A/S견적무료
정성을 다하는 직접시공. 혼을 담는 책임시공
주소 | 제주시 진동로5길 9, 유진빌라 201호
친절 문의 064.742.6234 010.7599.6234